

## 체조 요정 듀오 신수지-손연재

### ‘천상의 나라’ 펼칠게요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 손연재(17·세종고)와 신수지(20·세종대)가 런던 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손연재는 모스크바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신수지는 그동안 과로했던 오른쪽 발목 인대 수술을 통해 화려한 부활을 꿈꾼다.

◇3월 FIG 월드컵 출전=손연재의 소속사인 IB 스포츠는 손연재가 9일 모스크바 인근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 들어가 새 안무를 배우고 2월 말까지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쟁자들과 기량을 겨뤘던 손연재는 귀국 후 잠깐 쉬 쉬 세종고에서 동계훈련을 치르며 올해를 벌려왔다.

손연재는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 근거지로 삼아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출전, 기량을 테스트한다.

IB 스포츠 관계자는 “불, 리본, 후프, 곤봉 4종목 새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1주일 이 걸린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속련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연재는 3월25~27일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런던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수지 - 발목 수술 후 부활 다짐  
 연재 - 러시아서 새 안무 훈련

FIG 월드컵 대회를 위해 첫 출전 대회로 잡았다. 4월 28~5월1일 포르투갈 포르티마오에서 치러질 두 번째 월드컵 대회에 나가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날아가 5월6~8일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다.

5월13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 인근 코르베유에서 열린 A급 FIG 월드컵 대회를 거쳐 5월20일부터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4주간 강행군을 펼친다.

◇4월에 훈련 재개=신수지의 소속사인 세마스포츠 마케팅은 신수지가 10일 죽부전 병원에서 발목 인대 재건수술을 한다고 3일 밝혔다.

4주간 김스를 해야 하고 재활에는 6주가 걸리거나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훈련 중 왼쪽 발목을 다쳐 3개월간 재활에 몰두했던 신수지는 당시 오른쪽 발목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고전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한 달 전이던 작년 10월, 오른쪽 발목 인대에 손상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대회가 코앞이라 꼭 참았다. 발목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수지는 아시안게임 팀 경기와 개인종합에서 메달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체조 선수라면 누구나 지닌 ‘직업병’이나 인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기에 신수지는 수술 후 재 컨디션을 찾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의 실패를 교훈 삼아 9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런던 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겠다고 선언한 신수지는 5월 중 열린 리듬체조 대표 선발전에 첫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국민 골키퍼’ 이운재 전남 골문 지킨다

### 광주 FC도 박호진 등 6명 영입

으로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 갈 역할을 맡게 된다.

광양제철중을 거쳐 금호고를 졸업한 김홍일은 고교시절 청소년대표를 지냈으며 패시력이 좋다는 평가다.

맨투맨 마크에 능한 박병주는 중앙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김성민과 박상현은 사이드에서 활약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3일 최만희 감독·선수단과 상견례를 한 이들은 4일부터 시작되는 2011시즌 첫 합동 훈련에 참여한다.

한편 광주는 용병 선수와 스트라이커 등 경험 있는 선수 4명을 추가로 영입해 전력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9구단, 10구단 창단 될까 KIA 김상훈 연봉 3억5000만원 사인

### KBO 이사회 11일 논의

프로야구의 숙원인 ‘제9구단’ 창단 논의가 새해 들어 본격화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유영구)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어 제9구단 창단을 논의한다.

관심은 이미 신생팀 출범에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 게임 전문기업 엔씨소프트 외에 추가로 거론됐던 2개 기업이 창단 의향을 실제로 제출할지다.

KBO는 앞서 엔씨소프트가 통합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재정 능력

과 기업 규모 등에서 엔씨소프트에 절대 뒤지지 않는 2개 기업이 이사회를 전후해 창단을 선언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워왔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제9구단만으로는 대회 운영에 문제가 있어 10구단을 연계해 논의해 볼 계획이다. 9, 10구단이 동시에 출범하지 않고 차례로 창단해도 되는 만큼 10구단을 함께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8개 구단별 의견이 다른 만큼 그전에 기존 구단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BO는 장기적으로 10구단 체제를 만들어 현재 단리리그에서 5개팀씩 나눠 양대 리그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희걸 등 재활조 꾸림

KIA의 안방마님 김상훈이 3억5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KIA 타이거즈가 3일 포수 김상훈, 투수 김희걸과 2011시즌 연봉 재계약을 마쳤다. 김상훈은 지난 시즌 2억2500만원에서 55.6%인상된 3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시즌 4800만원을 받았던 김희걸은 700만원 인상된 5500만원에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KIA는 2011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2명 중 50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미계약자는 외야수 이용규와 투수 한기주 등 2명이다.

한편 3일 KIA의 스프링캠프 일정이 시작됐다.

투수 김희걸을 비롯해 안치홍·박기남·차일목·신종길(이상 야수) 등 재활조 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지인 판교로 떠났다.

이들은 장재중 코치의 지도 아래 팔 과세 오 구장에서 기초체력훈련과 캐치볼, 웨이트 위주의 재활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합류하는 투수조와 오는 27일까지 판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재활조는 28일 일본 미야자키로 장소를 옮겨 훈련을 이어간다.

3일 재활조로 판교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던 투수 한기주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출국 일정이 늦춰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조광래호 오늘 최후 리허설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알 자리라 클럽과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11일 치러질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둔 마지막 실전 테스트이다.

이 경기에서 조광래 감독은 지동원(전남)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배후에 구자철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시리아와 경기에서 박지성에게 주어졌던 처진 스트라이커의 임무가 구자철에게 주어질 셈이다.

박지성과 이청용(불턴)은 좌우 날개에 배치한다. 더불어 조광래 감독은 이번 알 자리라 클럽과 평가전에서 포백(4-back)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